

음성 가이드 : 오이토 지옥과 온천란

도로를 따라 쪽 가다보면 아즈마야가 보입니다. 이곳에서는 온젠 지옥을 두 가지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.

하나는 오른쪽에 앉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곳에 걸터앉아 맨발로 지옥의 열기를 느껴보는 것입니다. 돌 위에 놓인 목판은 발 아래 가스와 열탕으로 자연스럽게 데워집니다. 때때로 목판이 너무 뜨거워지면 화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온젠 관광국 직원이 폐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약간 출출하지 않으세요? 그럴 때는 두 번째 즐길 거리 ‘온천란’이 있습니다. 왼쪽에서는 지옥에서 나오는 고온 증기가 암반을 지나면서 ‘온천란’을 만들고 있습니다. 이 맛있는 간식은 100년도 훨씬 전부터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였습니다. 하지만 지옥에 사는 길고양이에게 여러분의 온천란을 뺏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!

보도를 따라 좀 더 가면 오이토 지옥이 있습니다. 지역 전설에 따르면 1800년대 후반 시마바라성 근처에 오이토라는 이름의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. 오이토는 애인과 함께 남편을 죽인 죄로 처형되었습니다. 처형되려던 순간에 지하에서 이 지옥이 부글부글 솟아올랐다고 합니다. 이 지옥에 오이토의 이름을 붙인 것은 부정과 살인죄를 범한 자의 최후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입니다.